



◇사이버 가수 '아담'.



◇채널1 사이버 여가수 '사이다'.

사이버 인간 허상인가 신인류인가

인간성 상실-우상주의의 만연 등 우려 자비넘치는 '사이버스님' 탄생 기대

2000년 음력 4월 초파일, '사이버 달마스님'이 불교대법회에서 화면을 통해 '달마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達摩西來意)'을 설한다. 이날 불교 TV에서는 '사이버 선재동자'가 '특집영화 화엄경'에 주인공으로 출연해 연기를 펼친다. '부다피야' 등 불교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저마다 '사이버 스님'들이 봉축가요를 발표하거나, 불교성지를 동화상과 함께 소개한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펼쳐질 사이버스님들의 활약상이다. 최근 사이버가수 '아담'과 '류시아'에 이어 사이버대학생 '라이언(경희대)'과 '스노우(숙명여대)', 사이버달리 '새출발' 부부 등 컴퓨터 그래픽으로 탄생한 '사이버 인류'들이 잇달아 탄생하고 있다. 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인터넷 가상공간을 뛰어넘어 현실세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사이버스님이 활약할 날도 멀지 않은듯 하다.

사실 이런 사이버인간들은 '인간의 애욕을 충족한 허상'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이버스타들은 10대 소녀들이 좋아하는 여러 스타의 매력 포인트를 짜맞춰 만들었다. 사람들이 그런 '이미지(相)의 조합'에서 대리만족을 얻는 셈이다.

조만간 사이버 애인을 두고, 사이버 섹스까지 하는 시대가 닥치리라 고 한다. 박상희 대중음악연구원장은 "사이버 인간의 증가는 곧치 아픈 '인간관계' 대신, 컴퓨터가 그려내는 '가상 천국'에만 탐닉하는 병렬인류를 탄생하게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밖에 '사이버 스타들에게 일 자리를 빼앗긴다', '음란·선정성에 대한 규제가 없다', '또다른 스타 중독증과 우상주의를 만든다', '청소년의 인간성 상실이 우려된다'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세계는 서부개척

시대 미국과 같은 기회의 땅이다. 누가 먼저 깃발을 꽂느냐가 중요하다"는 박종만 아담소프트사장의 말처럼, 사이버세계가 갖는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이 분명하다.

실제로 사이버인간은 고도의 동영상 기술이 요구되는 첨단과학으로서 IMF관리체제를 돌파할 수 있는 벤처산업의 선두주자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쌍방향통신으로 영상과 음성을 활용한 다양한 재택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가능케 하는 등 긍정적인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잘만 활용하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꿈을 실현하는 또 다른 불국토의 가상인류로 자리잡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목회와 신학〉 2월호가 "한국교회 가 사이버세계에서 펼쳐지는 영적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처럼 불교계도 사이버세계의 포교전략을 세울 때다. 자비심 넘치는 법음을 전할 사이버스님의 탄생을 기대된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불교의 눈

"가상세계도 불국토로"

"인연으로 이루어진 온갖 현상은 꿈이라, 허깨비라, 물거품·그림자들. 응당 이리히 보아야 하리." 〈반야경〉 가상공간의 사이버인간은 꿈과 같은 현실세계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허깨비다.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통신망 속에서는 존재하는 '가상 인간'은 '비유비무(非有非無)'의 허망한 인간의 삶을 상징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이버스타에게 환호하는 것은 "견고하지 않고 실체가 없으니 이는 절대적 경지의 것이 아니며 즐길 것이 못된다"는

〈살바다경〉의 말처럼 허망한 일이다. 하지만 꿈같은 가상세계도 청정 불심으로 창조해 간다면 또다른 불국토로 만들 수 있다. 기존 사이버인간들이 인간의 덕성보다는 피상적인 외모에 치중하는 단점을 보완해 자비심을 느낄 수 있는 원만구족한 불교적 인간상을 창조해 사이버불국토를 장엄해 나가야 한다. '부다피야' 조원희실장은 "사이버스님을 만드는 것은 포교전략상 필요하다. 불교적인 콘텐츠(내용)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55개의 대표적 부실기업이 드디어 시장에서 강제로 밀려나게 됐다. 이번 '6.18 퇴출'은 아무리 큰 재벌이라도 경쟁력이 없고 수익성이 떨어지면 결국 시장퇴출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시켰다. 하지만 퇴출기업에서 발생할 실직자는 물론 유관 중소기업의 도산에 따른 2차적 실업시대가 우려된다. 실직자들의 생계보호와 조기 재취업을 위해 정부는 최선의 방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리해고된 실직자들도 자포자기할 것이 아니라 재기의 의욕을 다져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는 고인(古人)들의 명언처럼 웅망정진의 자세를 갖는다면 실업의 고통을 이겨내고 IMF 관리체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편집자 주〉

再起 "끝없는 정진아래엔 좌절이 없다"

■ 용맹정진하여 온갖 악도에 떨어뜨리는 여러 번뇌를 없애며, 용맹정진하여 무지의 산을 무너뜨리며, 용맹정진하여 모든 부처님을 공양해 살생을 내지 않으며, 용맹정진하여 온갖 부처님을 받아 지니며, 용맹정진하여 온갖 장애의 산을 파괴하며, 용맹정진하여 온갖 고생을 교화해 완성시키며, 용맹정진하여 온갖 부처님의 국토를 미화한다. 이런 방편으로써 중생을 완성케 하는 것이다. 〈화엄경〉

■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큰 강물에 자기 몸이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그는 필시 강물을 건너가기 위해 큰 노력과 큰 정진을 할 것이요, 이런 큰 노력과 큰 정진 때문에 꿈에서 깨어날 때인데, 일단 깨고 나면 지금까지의 행위가 다 그치게 될 것이다. 〈화엄경〉

■ 이를테면 만약 부지런히 정진하면 일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부지런히 정진하는 바 있어야 할 것이니, 마치 작은 물도 끊임없이 흐르면 능히 돌을 뚫는 것과 같아서, 끝없는 정진 앞에는 못 이를 일이 없는 것이다. 〈유교경〉

■ 게으름은 온갖 악의 근원이요, 게으르지 않음은 온갖 선의 근원이다. 〈열반경〉

■ 이를테면 큰 바다도 한 사람이 팔로 헤아려 무한한 시일이 지나도록 그치지 않는다면 그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물며 사람이 지심(至心)으로 구도하여 정진해 마지 않을 경우, 무슨 구할인들 얻지 못하며 무슨 소원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대이타경〉

■ 이를테면 위대한 영웅이신 세존께서는 생사의 무거운 짐을 버리고 부지런히 수행해 좌절하지 않음으로써 빨리 보리에 이르렀다. 〈부자합집경〉

■ 이를테면 보살은 하나하나의 중생을 위해서 무량겁에 걸쳐 근행정진(勤行精進)하여 목숨을 안 아끼면서 온갖 괴로움을 받는다. 그리고 나서야 더없는 깨달음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육바라밀경〉

■ 이를테면 보살은 중생의 몸과 마음이 게을러 정진에서 멀어져 있음을 본 까닭에 정진의 갑옷으로 자신을 치장하는 한편, 다시 중생으로 하여금 게으른 마음을 버리고 노력 정진케 하느니라. 〈수호국계주경〉

화해의 '통일소' 반목의 '잠수정' "상호 인내는 평화"

'통일소'와 잠수정 사건은 한편에선 협력과 화해, 한편에선 긴장과 반목이 교차하는 한반도의 두 얼굴이었다.

북한 잠수정이 속초 앞바다 영해에 들어왔다가 고기잡이 그물에 걸려 군 당국에 끌려온 사건은 국민을 두 번 놀라게 했다. 공교롭게도 6월23일은 소떼를 몰고 방북했던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면서 금강산 관광사업 합의 등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을 던지는 메시지를 전한 날이었고, 유엔사와 북한 사이에 장성급 회담이 재개된 날이었다. 또한 판문점 비무장지대에서는 100여명의 외국기업인들을 초청해 투자설명회도 열렸다.

정부의 '햇볕정책'이 모처럼 결실을 맺고 남북간 화해분위기가 조성되려는 때에 찬물을 끼얹듯 발생한 북한 잠수정 침투사건은 국민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남북한이 안고 있는 딜레마이자 한반도의 복합적이고 이중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군사적 대치상태에서도 평화를 모색하는 것이 남북의 엄숙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인내는 자타(自他)의 평화를 낳는다"는 〈섭대승론〉의 가르침이 남북한 평화론의 요체가 될 것이다.

김재경 기자

"생명복제는 인간존엄성 위협" 진교훈교수 불교환경교육원 강좌서 주장

"유전자재조합은 돌연변이 생물체의 확산 등 풀이할 수 없는 재앙을 자연에 가져올 수 있으므로 엄격한 감시와 예방적 강구가 선행돼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존엄성과 모든 생명체의 정체성(正體性) 문제를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안전성 확보를 우선시 해야 합니다." 진교훈교수(국민윤리학)

6월19일 불교환경교육원이 주관하는 생명운동아카데미 강좌에서 '생명복제 시대의 생명윤리'란 강의를 통해 인간복제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진교훈은 '인조영색체 합성'과 관련, "인조영색체는 조물주의 권한인 인체설계도까지 인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2005년경 인체계체사업에 응용되

면 지능과 성격이 우량한 유전자들 가진 인간을 임의로 만들어 내는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교훈은 또 "인간복제는 '침부적 인권과괴, 인간의 종말'을 의미한다"면서 "인간복제는 소·돼지 등 동물의 복제와는 다른 문제"라고 강조했다. 즉 인간복제가 허용된다면 △인간(특히 남녀) 상호의 존성의 파괴와 사회가 와해되고 △인간의 유일성과 대치 불가능성이 사라져 인간의 상품화가 야기되며 △인간의 정체성·자발성이 상실되고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김재경 기자

환경시계 '9시 4분' 유네스코, '인류생존위기' 경고

환경재앙은 인류의 생존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을까. 유네스코 본부가 일본의 환경단체 아시아 가라스재단의 조사를 토대로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인류멸망 시점을 12시간 단위의 12시로 볼 때 현재의 지구상태는 9시4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6월 22일 밝혔다.

세계 9개 대륙 613명의 환경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이 조사는 위기의 심각성에 따라 '전혀 불안하지 않음'(0:01~3:00), '약간 불안'(3:01~6:00), '상당히 불안'(6:01~9:00), '극히 불안'(9:01~12:00) 등 4단계로 구분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나타난 9시4분은 인류생존이 위기의 최후단계인 '극히 불안'의 초기에 해당한다.

환경전문가들은 "환경재앙을 막기 위해 선진국은 개도국에 환경보전을 위한 자금과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환경을 파괴하는 제품의 수출입을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경 기자

새상품 **중무·신도관리 '달마'**

기본 도스용 중무프로그램에서 진일보한 WIN95용 프로그램 '달마'. 사찰의 다양한 행정업무 전산화해 준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 국내 최초로 개발한 통신 프로그램 'A/S박사'로 전국 어디서나 3분내에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란타. 가격 150만원. (02)3142-0108

해낸 일보다 남은 일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찰 전산화의 선두주자 아란타

신도관리 전산화 이제 문제없습니다.

아란타에서 개발한 달마 for win 총무관리 시스템

어렵게만 느껴지던 컴퓨터 이제 자신있게 시작하세요!

Windows 버전 출시 기념 할인판매

사찰관리 프로그램 전문업체로서 10여년 동안의 노하우로 개발한 프로그램 달마

「밀레니엄 버그를 해결한 Windows 95용 중무관리 시스템」 불교계 전산화의 일꾼으로 만들어진 아란타 중무관리 프로그램, 달마는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 분도 할 수 있도록 쉽게 만들었습니다. 다양한 출력물(출원문, 위패, 등표...)은 스님의 만족도를 한층 더 높일 것입니다.

■ A/S는 자체개발한 통신프로그램으로 전국 어디서나 3분 내에 처리해 드립니다.

· 고객 지원 센터 · ☎ 02)3142-0108

스님께서 키워가는 기업 아란타
삼일사이(3142)에 컴퓨터의 백팔(0108)번뇌를 해결해 드립니다.

21세기 사찰 전산화를 이끌어 가는 준비된 기업 아란타
서울 마포구 합정동 441-23 동암빌딩 303호 · TEL : 02)3142-0108 · Fax : 02)3142-2329